

리리 어버이날 메시지

응답하라!!! 승리의 길을 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운유기운(運有其運) 시유기시(時有其時) 인유기인(人有其人)이라는 말이 있다. 운(運)에는 그 운이 있고 때에도 그때가 있으며 사람도 그 일을 맡아서 이루어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다.

천지개벽의 운이 왔다

운유기운(運有其運), 지금은 어떤 운인가? 바로 천지개벽의 운이다. 지귀(地鬼)가 물러가고 천신(天神)이 오는 운이니 곧 죽음이 없어지고 불사영생(不死永生)의 세계가 열리려고 하는 것이다. '정도령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한다.'는 격암유록의 말처럼 지상에 신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운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시유기시(時有其時), 어떤 때인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선입자(先入者), 중입자(中入者), 말입자(末入者)라고 격암유록 말문론에 있듯이 지금은 중입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중입은 후유육축(後有六畜)이 중입이요 흑호이전(黑虎以前) 중입이라고 한바 후유육축은 신유술해자축(申酉戌亥子丑)의 6년이 중입이요, 흑호는 임인(壬寅)이므로 임인 이전 즉 신축(辛丑)까지가 중입이라는 뜻이 된다. 60간지는 60년마다 다시 돌아오므로 숫자로 특징짓지는 않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아도 대강은 알 수 있으리라. 비록 의로운 뜻을 가졌다고 해도 그 때를 놓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시험 날짜에 맞추어 시험을 보아야 합격할 것이 아닌가? 세월여아(歲不與我), 세월은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 법이니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유기인(人有其人), 사람은 누구를 말할인가? 죽음의 세상이 물러가고 불사영생의 세상이 오는 즉 천지개벽의 운에 어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을 내딛듯 코로나 환란에서 열심을 내어 율법을 지키면서 전도하라

찌 아무런 일이 없는 듯 그냥 넘어가겠는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난관(難關)이 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유기인(人有其人)의 그 사람이 아닐까 한다. 하늘나라 임금이요 인류의 진정한 스승이요 어버이인 그분을 격암유록에서는 정도령, 불경에서는 미륵불, 성경에서는 구세주라 하는 그분일 것이다. 그분을 꼭 만나야만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뜻한 봄은 기어오르고야 만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라야 송백(松栢)의 푸르름을 알 것이요, 비바람이 몰아쳐 거센 풍랑파도가 일어날지라도 오히려 영생방주의 도사공(都沙工)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요, 꽃샘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은 오고야 말 것이다.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혼란이 바로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요, 거센 풍랑파도요, 꽃샘추위가 될 것이다. 민족주의 시인 이상화(1901~1943)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읊었지만, 마귀

에게 빼앗긴 들(에덴동산)을 다시 회복할 주인공이 바로 인유기인의 그분이라. 천하분이정 부생공자망(天下分已定 浮生空自忙, 명심보감 순명편(順命篇) 즉 천하의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거늘 뜬 인생들이 부질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를 의역해 보면 천지공사로 이미 붙어 올 것을 정하여 놓았건만 뜬 인생들이 부질없이 바쁘게만 살아가는구나. 라는 뜻이 되겠다. 앞날을 잘 알지도 못하고서 자기중심으로 세상일을 이러쿵저러쿵 아는 체 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차라리 양심이 명하는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받들며 자기직분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할 것이다.

일심으로 화합하라

봄이 오기 전에 꽃샘추위가 있듯이 비록 신랍임삼(辛臘任三: 신년음력12월-임년음력3월)의 백조삼손(百祖三孫)이든 임랍계삼(任臘界三: 임년음력12월-계년음력3월)의 백조일손(百祖一孫)이든 도를 닦는 하늘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화합하여(修道 天民一心和) 자신 속의 마귀를 죽여 나가 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인유기인의 대성인(大聖人)이 그 재앙(災殃)을 감(鑑)해 주지

않겠는가?
 옛날에 스승이 제자의 공부한 바를 시험코자 제자를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게 하고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이 두려워 한 나머지 왜 스승님은 죽을 것이 뻔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며 스승을 의심하고 겁을 낸다면 그 제자는 평소 스승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한 바가 되어 진실한 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스승의 말씀이 있을 때 평소 스승을 굳게 믿으며 실천에 힘썼다면 아무런 두려움 마음이 없이 그냥 한 걸음 더 나아가갈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제자가 죽을까?

율법을 지키며 나팔을 불어 만민들을 모두 구원하라

그분은 감로해인으로 세계 만민을 살려 죽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주려고 하나 세상 사람들은 정성과 지혜가 부족하여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늘에서는 때가 비상한 지라 비상 호각을 불어 세상 사람들이 빨리 살 방도를 찾아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제 때를 당하여 하늘에서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듯하다. "내가 천지공사를 앞당기려 너희들이 올 수 없는 이곳에서 숨어 있는 것 같지만 내 다아나니라. 승리의 길을 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가르쳐준 자유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불사영생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기를 쓰고 있는가? 응답하라. 승리의 길을 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박명하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63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04>
 "마음의 싸움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이긴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마음의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좌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게 되면 싸움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이 내가 되어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마음을 조종하며 움직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려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의식이 완전히 제거 될 때까지는 마음의 싸움을 쉬지 않고 계속하며 애를 쓰고 기를 써야 이기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싸움을 멈춘다든지 다됐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붉은용 마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내 몸 얼마나 아십니까 - 코

코로 숨쉬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코는 냄새를 맡는 감각 기관이면서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콧속에는 냄새를 맡는 신경이 있고, 냄새가 나는 기체가 공기와 함께 콧속으로 들어와 이 신경에 닿으면 대뇌에 전해져 냄새를 알게 됩니다. 신경이 있는 부분은 겨우 5cm밖에 안 되지만 40만 가지나 된다는 냄새를 잘 구별할 수 있고, 들이쉬는 공기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허파로 보내며, 소리의 울림통 구실도 합니다.

한의학에서 코는 호흡기의 첫 관문으로서 외부세계와 폐장을 연결하는 일차공사를 앞당기려 너희들이 올 수 없는 이곳에서 숨어 있는 것 같지만 내 다아나니라. 승리의 길을 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가르쳐준 자유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불사영생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기를 쓰고 있는가? 응답하라. 승리의 길을 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박명하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63

찬 음식으로 먹으면 폐 손상 가능성

코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차가운 기운 한기와 뜨거운 기운 열기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원래 폐는 차거나 건조하거나 뜨거운 기운을 싫어하는데, 특히 찬 기운에서는 더욱 취약합니다. 몸을 차게 하거나 찬 음료를 많이 마시면 폐가 손상을 받게 되며, 폐에 병이 있을 때에는 더욱더 찬 음식을 피하고 보온에 주의해야 합니다. 코에서 가운 기습작용을 하는 것은 폐가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함이며, 콧병을 살필 때는 코 자체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폐의 관계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는 폐의 청병이므로 코 역시 찬 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로 인해 코막힘, 콧물 흘림, 재채기가 일어납니다.

열기에 의해 유발되는 콧병은 다시 외부적인 원인과 내부적인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열기에 의한 대표적인 병종은 축농증입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이 자주 앓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축농증이 오래되면 코뿐만 아니라 귀는 입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축농증이 심할 경우, 코에서는 코피가 나는 것은 물론, 입에서도 심한 악취가 나고 귀에서도 진물이 흐르거나 통증이 발생하며, 때론 눈까지도 침침해져서 시력감퇴를 초래합니다.

김주호 기자

면역 T세포

88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이상구 박사의 T림파구 강연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우리 몸에는 매일 매일 암세포가 1,000개 내지 5,000개씩 생기는데 T림파구라는 것이 암세포를 죽여버려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의 의학적인 지식은 신선하였다. 그후 3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코로나 판데믹의 중심에 있는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몸속의 (T세포)에 관심을 가져보자.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아무런 증상도 없이 나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방대 면역으로 기능함으로써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과 노약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여 집단면역 형성에도 중요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도 감염 이후 10일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하겠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더라도 증증 없이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몸속의 (T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광의(廣義)적으로 표현할 때, (T세포)라는 용어와 (T림파구(淋巴球, 림프구 lymphocyte))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슴샘(흉선thymus)에서 유래하는 림프구를 T세포라 하고, 골수에서 유래하는 림프구를 B세포라 한다. B세포는 항체 글로블린 생성에 상관하며, T세포는 면역에서의 기억능력을 갖는다. 또한 T세포는 B세포에 정보를 주어 항체 생성을 촉진시키는 등 세포 면역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 「Basic 고교생을 위한 생물 용어사전」 T세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역할에 따라 도움 T세포(Helper T cell), 세포독

성 T세포(Cytotoxic T cell), 조절 T세포(Regulatory T cell), 감마-델타 T세포(gd T cell), 자연살상 T세포(Natural killer T cell)가 있다. 이 중에서 자연살상 T세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이긴자 말씀에 의하면 혈액 속에 <생명자>가 있는데, 이 생명자의 분비물이 T림파구 또는 T세포로 분화된다고 한다. 웃는 마음속에서 생명자의 분비물이 발생되고 또 소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가서 호흡하면 산소 속의 생명자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우리 몸속의 T세포가 활성화되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태선 기자

정도령이 면절대로 풀수 없는 신비한 예언서

격암유록신해설 상·하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류의 미래 불안! 격암 남사고 선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 예언!! 감로해인의 주인공 정도령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불확실!!!

전국 서점 절찬리 판매중 ...역학 예언 베스트셀러 신이 이끄는 자 이 책을 만나리라!!!!

구세주의 말씀은 이제 그대로 모두 이루어진다